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가정생산이론적 접근

Time Allocation of Farm wives: A Household Production Approach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허 경옥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 교 수 김 인숙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Huh, Kyung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im, Insook

〈목 차〉

- | | |
|-------------|-------------|
| I. 서론 | V. 연구 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V. 연구 방법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ime allocation pattern of farm wives. In particular, it addressed i) the differences in extent of time spent in farming, housework, child care, and leisure between on-farm and off-farm seasons, ii)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time spent in such activities among farm wives and urban wives, and iii) the determinants of time spent in such activities. To achieve these goals, a system of time allocation equations based on household production theory was employed.

One hundred and eight farm wives were selected in 1993 by the methods of judgement sampling and cluster sampling. Two major questions in the survey elicited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and time-use of farm wives using the time-diary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farm wives make different decisions about how to allocate their time to farming, housework, child care, and leisure during on-farm

and off-farm seasons. In addition, it was that farm wives are more likely to have dual responsibilities than are urban wives. Finally, in the off-farm season, education, number of younger children, and region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explaining the time allocation decisions of farm wives.

However, only age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ir time allocation decisions during the on-farm season. This leads one to conclude that time allocation is not a choice for farm wives in the on-farm season.

1. 서론

시간자원의 중요성은 급속한 산업발전이후 더욱 부각되어 왔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여성의 시간사용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위한 이중적 노동시간과 여가활동 시간은 사회적·학문적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시간사용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는 가정관리학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제한적 시간자원의 합리적 사용, 관리적 측면의 시간, 생활양식, 생활의 질을 이해하는 연구영역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김의숙, 이기춘, 1988). 우리나라 학자들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김의숙과 이기춘(1988)의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논문에서 잘 요약, 정리되어 있다. 그들은 20년간(1962년-1987년) 수행되어 온 시간사용에 관한 우리나라 기존연구 43편에 대해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시간사용 연구의 주요영역은 시간사용 구조, 가사노동시간, 가사작업 간소화와 관련된 시간연구, 여가시간 연구였다.

가정관리학분야 외에도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시간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 신가정경제학파(New Home Economics)의 발전으로 인해 시간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가정생산모델에서도 소득에 근거한 시장재의 소비가 효용을 창출한다는 고전적인 견해와는 달리, 신가정경제학적 견해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어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으로 가정생산물(Household Commodities)이 창출되

고 또 효용의 근간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Berk, 1980).

그러나, 여성의 시간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다른 나라 및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부분 도시여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농촌과 농가주부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김주숙(1984)은 농촌여성은 농가의 주부일 뿐 아니라 농업생산의 주된 노동력제공자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 규모 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특성과 함께 가족구성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생산 방식이 대부분이었다(김인숙, 최은숙, 1991). 또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현상이 지적되어 온 바, 농가여성의 역할 변화와 함께 농가여성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농가주부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으나 그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들의 시간사용 실태에 관한 전반적 고찰과 함께 그들의 농업노동, 가사와 육아노동, 여가 등의 시간배분 결정요인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허경옥(1994)은 가사노동과 육아는 노동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자녀를 위한 노동은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기쁨을 수반하는 반면, 가사노동은 시간제약에 따른 융통성, 피로감,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배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구별하여 분석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쌀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농가주부의 시간연구이므로 농가의 생업활동이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모든 분석은 농업시기별로 구별하여 수행하였다.

시간사용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이나 기초없이 실증적 연구에 치중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기초적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신가정학과의 가정생산이론으로 이를 기초하여 분석모형을 전개하였다.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실태 및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농가주부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시간자원 사용상의 균형상태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 노동력의 여성화, 농업인구의 감소, 여성의 불균형적 시간사용 등과 같은 현실에서 농촌여성의 시간배분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는 농촌가정의 생활실태 파악과 생활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서는 농촌주부의 시간사용 실태가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농가주부의 시간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2. 농가주부의 시간사용이 농사시기, 즉,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3.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우리나라 농가주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

시간사용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는 농촌주부보다는 도시주부에 치중하여 농가주부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연구는 양적으로 미흡하였다. 더욱이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농촌주부의 가사, 농업, 사회·문화적 활동 등 개별적 활동에의 시간사용에 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농촌주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는 농촌

진흥청과 조희금(1990)의 연구로써 그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농가주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
(단위:하루평균, 시간.분)

연구자 시 대	농촌진흥청			조의금*
	1979년	1983년	1988년	1990
농사시기	농번 농한	농번 농한	농번 농한	농번 농한
농업노동	4.46 1.13	8.54 0.35	7.52 1.39	6.18 1.45
가사노동	4.28 6.51	4.29 5.32	4.52 5.56	4.40 3.36
전체노동	14.14 8.04	13.23 6.07	12.44 7.35	10.58 4.81
사회 문화	1.02 5.12	1.21 6.42	1.31 5.53	2.07 6.16
생리적	8.44 10.44	9.16 11.11	9.55 10.32	10.29 11.42

*: 비농사를 주요 노동으로 하는 전통농가의 생활시간

농촌진흥청에서 1979년부터 5년 간격으로 농가의 생활시간을 조사 연구한 결과(표1)를 살펴보면 농번기에 농가주부의 농업노동시간이 점차 줄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고 가사노동의 시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노동시간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가주부의 이중적 부담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시간과 생리적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노동시간 감소가 사회·문화적 시간 또는 생리적 시간 등 비노동시간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한기의 경우 1983년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이 1979년에 비해서는 감소하다가 1988년에 접어들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희금(1990)은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연구에서 시간량적인 면과 시간대별로, 농가는 전통농과 상업농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농촌진흥청과 본 연구는 비농사를 주요 노동으로 하는 전통농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조희금(1990)의 연구결과 중 전통농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전통농가의 농촌주부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시간 36분(수입노동, 농업노동, 가

사노동의 합), 사회·문화적 시간은 2시간 07분, 생리적 시간은 10시간 29분으로 밝혀졌다. 농사시기별로는 농번기에 농촌주부들의 농업노동의 경우 6시간 18분,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40분으로 나타났고, 농한기에는 1시간 45분의 농업노동, 3시간 36분의 가사노동시간으로 측정되었다. 농사시기에 따른 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에서 농업노동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가사노동과 생리적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차성란(1995)의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은 4시간 30분, 농업노동은 4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농촌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노동으로 매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취업주부의 이중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농촌주부들의 이중적 부담에 대해서는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농촌주부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전업주부(38%)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통농가주부 시간사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정희(1993)는 도시와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하였는데,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순수농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아 다소 과다측정되었다. 권영자(1987)의 연구에서는 농가주부의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 평균 11시간 21분, 농한기에는 2시간 49분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농촌주부의 농업노동시간이 다소 길게 측정되었다. 윤소영(1990)의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농업노동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10시간, 2시간 50분, 가사노동에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3시간 20분, 5시간 20분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참고적으로, 농촌진흥청 연구보고서의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최근 연구인 이기영과 이승미(1994)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시간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농가주부의 경우 도시의 취업주부보다 이중역할에의 부담이 보다 과중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기영과

이승미(1994)의 연구에서, 취업주부는 수입노동시간에 8시간 20분, 가사노동에 3시간 28분, 그리고 사회·문화시간에 2시간 19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1988년 결과와 비교하면, 농번기 농가주부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합한 하루 평균 전체 노동시간은 12시간 44분으로 도시취업주부의 12시간 8분보다 36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시간도 농가주부의 경우 도시취업주부의 2시간 19분보다 48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보다 사회·문화적 시간이 점차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해도 도시취업주부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각 연구자마다의 표집방법, 조사방법, 활동별 시간분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의 비교가 다소 어렵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면, 농촌주부의 노동시간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기는 하나 전체 주부와의 노동시간과 비교할 경우는 여전히 과중함을 보여주고 있다(문숙재, 1996). 또한 남편인 농업경영주부보다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촌진흥청, 1988). 이같은 농번기의 과다한 농업노동시간은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의 감소 및 가사노동의 질 저하와 함께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조희금, 1989; 김혜경외, 1990). 반면, 농가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다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다. 농가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TV시청이거나 마을 방문하기였다. 조희금(1990)의 연구에서도 농가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의 경우 내용상 70%가 TV시청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업노동은 노동특성상 노동집약적이어서, 계속적인 농업노동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의 시간이 필수적이므로, 농가주부의 여가활동 시간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주부의 여가가 내용상 노동력 재생산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소극적 의미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변수의 영향력 조사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어 왔다. 차성관(199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과 농의소득, 가족수, 결혼지속년수 등에 따라 농가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희금(1990)은 농촌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에서 전통농과 상업농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상업농지역의 농번기의 경우 농업노동시간, 농가 경작면적, 가족 수는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미한 변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농업노동과 가사노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 농번기의 농업노동 증가는 가사노동의 감소와 연결되는 결과임을 밝혔다. 한편, 전통농지역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시간, 농업노동시간, 생리적 시간, 경작면적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효숙(1983)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형태와 크기, 학력, 막내자녀 연령, 가족 수와 자녀수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와 농촌의 시간 비교에서 가사노동은 농촌주부가, 사회·문화적 시간은 도시주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가주부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변수 고찰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사노동시간 분석에 관심을 두어 왔으며, 시간배분 전체적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론적 배경의 도입이나 응용 없이 몇몇 사회인구적 변인이나 가정특성의 변인들의 영향력만을 조사하여 왔다. 더욱이 관련변수 고찰시 시간배분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활동별 시간간의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배분 연구시 이같은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전개와 모델설정이 필수적이다.

2. 시간배분 연구 고찰

시간배분에 대한 가정경제학적 접근의 시초는 Mincer(1962)와 Gronau(1977)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Gronau(1977)의 시간배분에 관한

이론적 전개는 주지할 만하다. Gronau(1977)는 가계 행동분석의 중요한 모델인 미국 신가정경제학파의 기본적 입장을 시간배분에 적용하였다. 그후에도 시간배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Bryant(1990)의 저서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에서 시간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전개가 정리되어 있다.

시간사용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생활시간의 세 가지 주요활동인 시장노동, 가정노동, 여가에의 시간 중 특정활동 어느 하나에 사용된 시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시말해, 가사노동시간만을 연구하거나, 또는 여가시간만을 연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한가지 특정활동에의 시간 연구는 시간배분과 관련한 전체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이 있다. 한 가지 특정활동에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에서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outhitt, Zick, & McCullough, 1990). 다시 말해, 시간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간배분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Douthitt의 연구자들(1990)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기혼여성과 편모가정 여성의 시간배분을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이 시간배분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시간이용자료인 1979 California family time-use, 1979 및 1985년도 PSID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면접자료, 1987-1988년의 Utah Time-Use Study 자료 등 3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임금률, 비근로소득 등 경제적 특성과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서 연령, 가정내 어른 수, 자녀 수, 어린 자녀 연령 등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Mauldin과 Meeks(1990)가 기혼여성과 편모가정의 여성가장의 시간배분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여성의 임금률, 비근로소득, 교육수준, 연령, 직업상태, 막내자녀의 연령, 지역, 방의 수, 요일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 중 단지 요일(주중인가 주말인가)만이 시간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과 편모가정의 여성가장 모두 주말에는 가사노동과 여가가 증가하는 반면,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Nickols와 Abdel-Ghany(1983)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여가시간 분석에서 임금률, 교육수준, 가계소득, 어린 자녀 연령 등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더불어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자체를 모두 여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이 결과에서 부인과 남편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사회인구적 특성이 아닌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임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하나의 특정 활동에의 시간은 다른 활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Firestone과 Shelton(1988)의 여가시간 연구에서 여가시간을 적극적 여가(active leisure)와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¹⁾, 연구모델에서는 여가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인 자녀수, 연령 등의 변수 이외에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시간을 역시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그들의 연구결과에서는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분석방법이 선형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각 특정활동시간의 상호영향력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III.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 모델

시간배분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Becker(1965; 1991)를 중심으로 하는 신가정경제학파의 가정생산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기본적 전제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 또는 분배한다는 것이다(Bryant & Zick, 1994). 효용함수는 다음의 (1)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U = u(C, L, Zc, Zh)$$

여기서 C는 시장재, L은 여가, Zc는 자녀양육, Zh는 가사노동을 의미한다. 이 수식은 사람들의 효용은 시장재의 소비, 여가생활, 그리고 가정생산으로부터 창출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재의 소비는 소득에 근거하게 되므로, 소득제약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제약을 나타내는 함수식은 아래의 수식 (2)와 같다.

$$(2) PQ = W M + V$$

여기서 P는 시장재의 가격, Q는 구입량, W는 시장임금, M는 시장노동시간, V는 비근로소득을 의미한다.

가정생산을 설명하는 가정경제학적 접근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형태로 가정생산체계가 이루어 지는데 이 생산과정에서 시간자원이 도입되고 있다. 가정생산체계는 아래의 수식 (3)과 (4)로 나타낼 수 있다.

$$(3) Zc = f(Tc; D; X)$$

$$(4) Zh = f(Th; D; X)$$

위의 수식들은 가정생산이 시간제약(T),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의 특성들(D), 그리고 가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요소(X)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적 요소는 가정에서의 고정되어 있는 주택, 가구, 가전제품, 각종 가구 및 설비 배열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의미한다. 가정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D)으로는 주로 자녀수, 어린 자녀의 존재, 교육, 연령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시간자원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주어지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5) T = L + M + Tc + Th + O$$

여기서 T는 총시간(24시간), L은 여가시간, M은 시장노동시간, Tc는 자녀양육시간, Th는 가사노동시간, O는 기타 생리적 시간을 의미한다.

1) 적극적 여가는 창조적 활동(그림 그리기, 악기연주, 노래, 연극), 직접 하는 스포츠, 영화관람 및 문화행사 참가, 사교 활동을 포함하며, 소극적 여가는 대중매체 감상(TV 보기, 라디오 시청, 음악감상), 독서, 대화, 휴식(공상, 낮잠)을 포함한다.

2. 연구 모델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적인 가정생산모델을 본 연구에 응용하면, 무엇보다도 상품재화의 가격과 가정생산의 기술적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시간은 시간배분모델에서 제외시켰다.

가정경제학자들의 기본적 가정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시간배분 연구모델은 선행연구들이 발전시켜 온 모델을 도입하였다.

시간배분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 가사 및 육아노동, 시장노동 등 개별적 활동에의 시간이 상호연관되어 있어서, 주어진 24시간 중 한 활동에의 시간사용이 다른 활동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배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OLS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이같은 상호연관성을 배제하게 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간배분 연구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한 Tyrrell과 Mount(1982)는 종속변수인 시간배분을 정규화시키기 위하여 시장노동 중 특정활동에의 시간을 비율화시킨 후 상용로그를 붙여 시간사용이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는 문제점을 완화시켰다²⁾. 또한, 이들의 모델을 Douthitt 등의 연구자들(1990)이 도입하여 편모가정의 여성가장과 일반가정의 여성들의 시간배분을 연구하였다. Mauldin과 Meeks(1990)는 OLS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비선형적 통계분석기법인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이용하여 시간배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발전된 모델 중 종속변수인 시간배분 변수를 OLS 통계기법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모델은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log (L / F W) = b_0 + b_j D_j$$

$$(7) \log (H W / F W) = b_0 + b_j D_j$$

$$(8) \log (C / F W) = b_0 + b_j D_j$$

여기서 L은 여가시간, HW는 가사노동시간, FW는 농업노동시간, C는 육아시간을 의미한다. D는 각각의 특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 a) 농가의 농업활동 특성 · · 지대 (산간 또는 평야), 농업규모(대농 또는 소농),
- b) 농가의 경제적 특성 ·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 c) 농가주부의 개별적 특성 · · 연령과 교육수준,
- d) 농가의 가정적 특성 · · 가정내 어른 수, 어린 자녀수를 포함한다.

IV.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 농가는 일반 벼농사가구로 주부와 남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다. 대상 농가를 표집하기 위하여 도와 마을 선정은 군집표집법을, 군과 농가선정시는 의도표집법을 이용하였다. 행정구역상 9개도 중 3개도를 선정하고, 각 도별로 평야, 산간의 정도에 따라 지대별 특성을 부여한 후 이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군을 6개씩 판단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군당 2개 마을씩을 선정하였다. 이 해당 군에서 군의 지대특성에 적합한 시범마을과 일반 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다시 농가의 규모를 대농, 중농, 소농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농가 1호씩을 선정하였다. 이같은 표집과정을 거쳐 최종선정된 농가는 3개도 18개 시·군, 36개 마을의 108농가이다.

조사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농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한 설문지와 연구목적달성하기 위한 생활시간에 대한 조사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은 사회인구적 변인들, 농가의 경제적 상황, 농업규모 및 경영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정된 가

2) 종속변수인 각 활동에의 시간을 정규화시킨 후에 선형성을 전제로 하는 OL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OLS 방법에 적합하도록 종속변수를 변형하였다.

구별로 농가주부와 남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는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한기(1993년 2월 15-27일 사이 2일)와 농번기(1993년 5월 10-29일 사이 2일)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때, 생활시간 조사단위는 분단위로 측정하였고,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2일간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평균값을 하루의 생활시간으로 정리하였다. 조사는 정해진 기간 중 해당 농가의 가장 평상적인 날을 택해 실시하였다. 즉,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을 피하도록 하였다(예: 제사, 생일, 장시간의 외출이 있는 날).

조사방법은 농가주부의 기입능력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의 해당지역 공무원(생활지도사)을 조사원으로 하였다. 사전에 조사요령에 대한 훈련과 사전실습을 거친 조사자가 해당농가에 거주하면서 생활시간 사용내역을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대상주부에게 질문하였다.

2. 변수 측정

a) 종속변수

생활시간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실제활동 내역을 기록하였으나, 연구 목적을 달성키 위해 4가지의 활동에 사용한 시간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농업노동시간은 쌀과 밭농사 등 주요농업노동과 이외의 노동시간의 합으로 측정하였다³⁾. 가사노동시간은 1988년 농촌진흥청의 생활시간 분류방식을 도입하여,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그리고 기타 가정관리시간의 합으로 하였다⁴⁾. 자녀양육시간은 육아, 학교

및 자모회 참석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가사노동시간과 분리하였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노동 내용 및 특성상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제약, 융통성, 여가성, 피로감, 육체적 힘의 필요성,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시간의 양이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허경옥, 1994). 무엇보다도 자녀 돌보기는 인간과의 상호접촉시간이며 부모에게는 인적자본투자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가사노동과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시간을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로 구분하였다⁵⁾.

b) 독립변수

농촌주부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관련변수조사를 위한 독립변수는 크게 농가의 고유특성, 경제적 특성, 농가구 특성, 그리고 여성의 특성이다. 농가구 특성으로 지대와 농업규모를 연구모델에 포함하였다. 지대는 농업유형별로 중간지대(경기도), 산간지대(경북), 평야지대(전남)로 구분하였다. 영농규모는 논과 밭의 면적을 합하여 구분하였는데, 대농의 경우 2ha 이상, 중농은 1ha-2ha사이, 소농은 1ha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대와 영농규모를 각각 중간지대와 중농을 기준으로 한 가변수로 처리하여 모델에 이용하였다(산간=1, 대농=1). 농가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농가구특성은 시간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인 가족내 5세미만 어린 자녀수와 어린 수가 이용되었다. 여성의 특성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이용되었다.

3) 주요 농업노동은 논일과 밭일을 의미하며, 이 이외의 노동은 논일과 밭일을 제외한 기타 부업노동으로 양축, 영농준비(농기계 손질, 일꾼 교섭, 종자관리 등), 과수작업, 시설원에 작업, 농업노동을 위한 이동시간, 겸업, 판매 및 구매시간 등을 포함하였다.

4) i)식생활시간: 식사준비 및 설거지 등, ii)의생활관리 시간: 빨래, 바느질, 다림질 등, iii)주생활관리 시간: 청소, 주택관리 등, iv)가정관리: 가계부 기록, 구매, 기타 (자녀 혼수감 준비 등)

5) 여가의 분류는 Firestone과 Shelton(1988)의 연구에서 적극적 여가(active leisure)와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의 분류에서 도입함.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적극적 여가는 집 밖에서 행하는 여가, 시간 제약이 있는 여가,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 활동을 의미함. 반면, 소극적 여가는 기분에 따라 행해지며,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가정활동과 겹치는 활동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여가는 친지 및 이웃 방문, 가족환담 및 손님접대, 독서, 라디오 청취, TV 보기, 취미 및 오락 등의 시간으로, 적극적 여가는 스포츠, 마을 활동, 종교활동 등으로 하였다.

V. 연구 결과

1. 농가의 일반적 특성

대상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표2>에 제시되었다. 논과 밭을 합한 평균 농지규모는 1.71ha이며, 농가의 연간총소득은 평균 약 1천3백3십만원이었다. 이 중 순수하게 농업과 관련한 소득은 약 1천8십만원이고, 농외소득은 2백5십만원이었다. 농가총소득을 영농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농의 경우 약 1천7백만원, 중농과 소농의 경우 약 1천4백만원이었다. 지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산간지대의 경우 평균 총소득은 1천6백만원이며, 중간지대의 경우 1천3백만원, 평야지대의 경우 약 1천만원이었다⁶⁾. 평균 가족 수는 약 5명, 어른 수는 약 3명이며, 자녀수는 평균 약 2명이었다. 한편, 5세미만 어린 자녀를 가진 농가는 약 8%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평균 가족수가 도시보다 많고, 어린 자녀를 가진 결혼초기 또는 생애초기 농가가 적음을 시사하여, 농가가 점차 노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부학력은 46%가 중졸이하의 수준이었으며, 20%만이 초대졸이었다. 주부나이는 평균 44세였고 46세이상 주부가 전체농가의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2.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농사시기별로 농가주부의 시간사용에 대한 실태는 <표3>에 제시되어있다. 농가주부들은 농번기 평일 하루 농업노동에 약 8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약 5시간을, 그리고 여가시간에 약 2시간을 할애하였다. 농한기에는 농업노동에 약 2시간, 가사노동에 약 5시간 반, 그리고 여가에 약 5시간 반을 각각 할애하였다.

농업노동시간의 경우 농촌진흥청 1988년도 결과인 농번기 7시간 52분, 농한기 1시간 39분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농번기와 농한기의 농업노동시간 (8시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8)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농업소득	10807	6161	농외소득	2524	3908
총소득	13332	7597	농경지(ha)	1.71	0.88
주부 연령	43.62	9.15	어른 수	3.22	1.17
가족 수	4.93	1.40	어린자녀수	0.09	0.34
변 인	범 주	N	%		
총소득	5백만원미만	12	11.1		
	5백-1천만원	29	26.9		
	1천-1천5백만원	32	29.6		
	1천5백-2천만원	18	16.7		
	2천만원이상	17	15.7		
영농 규모	1ha미만	6	7.2		
	1-2ha	42	50.6		
	2ha이상	35	42.2		
주부 연령	25세 이하	1	0.9		
	26-35 세	16	14.8		
	36-45 세	46	42.6		
	46-55 세	33	30.6		
	56 세 이상	12	11.1		
주부 학력	중졸이하	50	46.3		
	고졸	37	34.3		
	초대졸이상	21	19.4		
가족 수	2-3 명	16	14.8		
	4-5 명	56	51.8		
	6 명 이상	36	33.3		
어린자녀	없음	100	92.6		
	있음	8	7.5		
어른 수	2 명 이하	37	34.2		
	3-4 명	54	50.0		
	5-6 명	17	15.7		

소득:년간소득/단위=천원.

16분, 2시간 10분)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금(1989)의 연구에서는 전통농가 주부의 평균 농

6) 평야지대는 지역내 들이 75%정도 또는 그 이상인 지역, 중간지대는 산과 들이 약 50% 정도, 산간지대는 산이 75%정도인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표 3〉 농가주부의 시간사용 결과
(하루의 시간사용/단위:시간.분)

활동영역	농가주부의 시간	
	농번기	농한기
생리적	9.03	10.49
농업노동	8.16	2.10
가사노동		
의생활	1.01	0.41
식생활	2.34	2.52
주생활	0.31	0.58
가정관리	0.22	0.34
육아	0.22	0.28
소계	4.50	5.33
여가		
적극적	0.20	0.19
소극적	1.31	5.09
소계	1.51	5.28

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 6시간 18분, 농한기에 1시간 45분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의 농가주부의 농업노동 시간은 다소 긴 것으로 측정되었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농가주부가 농번기에 4시간 50분을 농한기에 5시간 33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1988년 조사결과인 농번기 4시간 52분과 농한기의 5시간 56분의 결과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희금(1989)의 연구에서는 농번기에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분 농한기에 3시간 36분으로 나타났고, 김정희(1993)의 연구에서는 7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조희금(1989)의 연구에서는 상업농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고, 김정희(1993)의 연구에서도 순수농업가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조희금, 1989, 1990; 차성란, 1995)은 도시주부보다 농가주부가 전체적으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가주부들의 여가시간연구에서는 조희금(1990)의 연구에서 전통농의 경우 농번기에 2시간 7분, 농한

기에 6시간 16분을 소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농가주부의 여가시간이 다소 적게 측정되었다(농번기 1시간 51분, 농한기 5시간 28분). 농가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취업도시주부보다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이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견해다(문숙재, 1996).

여가활동을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농가주부들은 적극적 여가활동에 하루 평균 농번기에 19분, 농한기에 42분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소극적 여가활동에는 농번기에 1시간 31분, 농한기에는 5시간 9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주부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소극적 의미의 여가활동으로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TV시청, 라디오청취, 손님접대) 또는 이웃방문이 대부분이다. 이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농촌주부의 여가활동의 내용적인 면 또는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농사시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시간사용

농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농사시기에 따라 시간사용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주부들의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시간배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짝을 이룬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4〉에 제시되었다.

제시한 바와 같이, 농사시기에 따라 농가주부의 농업노동시간,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농한기에 주부들은 농번기보다 여가활동과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농번기에 농업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함이 밝혀졌다. 주지할 결과는 농가주부들의 자녀양육 시간에는 농사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양육의 활동이 여가나 가사노동과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다른 가정활동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농사시기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활동별로 세분화시켜 짝을 이룬 T검증 결과는 〈표5〉에 제시되

〈표 4〉 농사시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시간사용의 차이
검증 결과

(단위:분, N=108)

활동영역	농사시기	평 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값
농업노동	농한기	129.9	153.6	366.7 (18.3)	19.98***
	농번기	496.7	170.9		
가사노동	농한기	335.4	117.6	39.0 (12.7)	3.05**
	농번기	290.7	148.5		
육아	농한기	28.1	41.4	5.6 (3.26)	1.72
	농번기	22.4	36.9		
여가	농한기	329.0	137.4	216.7 (16.34)	13.26***
	농번기	112.3	111.6		

** p < .01 *** p < .001

괄호수치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었다. 농업노동도 주요 농사일(예:논일, 밭일)과 그 이외의 노동(예:양축, 견업, 수매, 과수, 원예)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특히 주요 농사일에 할애한 시간의 경우만 농사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활동별 분석에서 청소를 포함하는 각종 주생활에의 시간이 특히 농사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의생활의 경우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여가의 경우 적극적 여가시간(스포츠, 종교활동, 마을활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소극적 차원의 여가시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로 농업노동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한 농한기의 여가시간이 대부분 TV 및 라디오 시청이나 손님접대 등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시간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농번기와 농한기로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6〉과 〈표7〉에 제시하였다. 모델전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어진 일정한 시간내에서 한 특정활동에의 시간소비량은 다른 특정활동에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표 5〉 농사시기에 따른 세부적 활동의 시간사용 차이
검증결과

(단위: 분, N=108)

활동영역	농사시기	평 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값
농업노동	주요 농사일	농한기 72.7 농번기 441.8	116.4 207.7	369.1 (21.8)	16.92***
	견업	농한기 57.2 농번기 54.8	124.4 102.4	2.4 (15.4)	0.15
가사노동	의생활	농한기 41.9 농번기 60.9	30.4 112.1	19.0 (11.09)	1.71
	식생활	농한기 172.1 농번기 154.0	56.7 77.5	18.0 (8.39)	2.15*
주생활	농한기 58.8 농번기 31.2	37.1 27.2	27.6 (4.14)	6.66***	
	가정관리	농한기 34.3 농번기 22.0	50.2 51.2	12.3 (5.42)	2.26*
여가	적극적 여가	농한기 19.2 농번기 20.5	54.2 75.2	1.37 (8.87)	0.15
	소극적 여가	농한기 309.8 농번기 91.7	134.3 76.3	218.0 (13.65)	15.97***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수치=표준오차(standard error)

히 선형적 회귀분석을 이용하기보다는 중속변수인 시간배분을 선형적 회귀분석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는

7) 이 같은 변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농번기의 경우 농가주부 전원이 농업활동에 참가하고 있었고 (최소 35분, 최대 12시간 51분, 평균 8시간 26분), 농한기의 경우 19%인 21명의 주부만이 농업시간이 0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최대 12시간 2분, 평균 2시간 15분). 농한기의 경우 농업시간이 0인 경우 분석의 실행을 위해 1분으로 처리하였다.

〈표 6〉 농한기 농가주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결과
(N=108)

변 인	log(농/가사)	log(농/육아)	log(농/여가)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지대	-1.300**	-1.552**	-1.111*
영농규모	0.183	-0.293	-0.050
농업소득	-0.081	-0.187	-0.136
농외소득	-0.041	-0.075	-0.062
주부연령	-0.012	-0.031	-0.012
주부교육	0.793**	1.307**	0.082**
어른 수	-0.101	0.030	-0.167
어린자녀수	1.796**	1.105	1.306*
intercept	2.187	0.079	2.679
R square	0.262	0.351	0.190
F 값	4.405	4.132	2.905

* p < .05, ** p < .01

참고: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함,

농은 농업노동 시간, 가사는 가사노동시간, 육아 및 여가는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을 의미함.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노동 중 특정활동 시간 비율에 상용로그를 취한 후 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⁷⁾.

여러가지 변인들의 효과는 농사시기에 따라, 즉 농번기인가 농한기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변인들의 효과는 농한기에 뚜렷한 반면 농번기에는 단지 연령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농번기의 경우 농업이 생업인 농가특성상 어떤 변인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간을 배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기간간의 시간사용차이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번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을 농업노동에, 반면 보다 적은 시간을 여가와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이 이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한기의 경우는 농번기와는 달리 여러 활동에의 시간배분이 보다 선택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농가주부들의 시간이용이 여러가지의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이 주지할 만하다. 농한기의 경우,

〈표 7〉 농번기 농가주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변 인	log(농/가사)	log(농/육아)	log(농/여가)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지대	-0.120	0.167	-0.111
영농규모	0.005	0.457	-0.155
농업소득	0.019	-0.167	-0.020
농외소득	0.050	0.012	0.086
주부연령	-0.030*	-0.095	-0.028*
주부교육	0.089	0.275	0.154
어른 수	0.057	0.291	0.132
어린자녀수	0.400	-0.185	0.394
intercept	0.126	0.000	-1.346
R square	0.234	0.347	0.153
F 값	3.784	3.266	2.217

* p < .05, ** p < .01

참고: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함,

농은 농업노동 시간, 가사는 가사노동시간, 육아 및 여가는육아시간 및 여가시간을 의미함.

세개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간이나 평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대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산간지대 농가주부일수록 평야지대 주부보다 농업노동시간 중 가사와 육아, 여가에 적은 비중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업노동 시간 중 기타 활동에의 시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 자녀가 존재하거나 그 수가 많을수록 여가 및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농번기의 경우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뿐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이 적어짐을 알 수 있는데, 농가의 경우 고령자가 많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 이외의 변수들은 농번기의 농업노동 중 가사노동과 육아에의 시간비율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연령이나 농가소득 또는 농업의 특성인 지대 또는 영농규모 등의 변수는 농가

주부의 시간배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부의 시간사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농가주부는 농번기 평일 하루에 농업노동에 8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약 5시간을, 그리고 여가시간에 약 2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농가주부는 농번기에 하루평균 13시간 정도를 노동에 할애하고 있어 매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주부의 공장취업 등 비농업수입노동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비농업노동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농가주부의 이중적 부담 또는 과중한 노동부담은 더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 특히 농번기에는, 과중한 농업 및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하여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불균형적임을 알 수 있다.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여가활동의 부족은 농가주부의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농가주부의 시간사용은 농사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는데, 농번기에 농업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기타의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주부가 농번기에 과중한 농업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을 줄이고 있으므로 이는 시간사용의 균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생산모델에서 가정생산으로 인한 생산물(예: 잘 다려진 옷, 맛있는 반찬 등)이 전체적 효용, 만족감을 증진시켜 결국 삶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 바, 농가주부의 가사노동과 여가에 소홀함은 가정생활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효과검증 역시 농사시기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농번기에는 단지 연령만이 주부들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번기 특성상 (모두 농업노동에 참가해야 하는) 어떤 변인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간배분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 수록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에의 시간할애가 적어짐을 알 수 있는데, 농가의 경우 고령자가 많은 사실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농한기의 경우는 농가주부들의 시간이용이 여러가지의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져 이는 농번기보다 농한기의 시간배분이 보다 개인적 선택사항임을 알 수 있다. 농한기의 경우 산간이나 평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대, 교육수준, 어린 자녀의 존재 등의 변수들이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으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도시주부의 시간배분 또는 생활시간에만 집중되어 온 점과는 달리 농촌주부의 시간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헌점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주부의 시간배분연구에서는 농업노동이 아닌 수입노동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농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한기에는 많은 농가경영주와 주부들이 농업노동이외의 수입노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였다(Marlowe & Godwin, 1988; Ahearn, 1986; Sumner, 1982). 이같은 시장노동시간은 여타의 활동시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간배분 연구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쌀 농사만을 하는 전통적 농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근처 공장이나 농업이외의 수입노동에 대한 농가주부의 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한 또 하나의 제한점은, 농가주부의 시간배분 영향요인 분석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중요시해 왔던 변수들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 예를 들면,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전통농가의 경우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 또는 태도가 보수적일 수 있고 또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도 있으나 연구분석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농가의 시간배분 연구를 위한 충분한 정보 또는 조사 자료

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권영자 (1987). 농촌주부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농가주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5, 4, 5-47.
- 2) 김인숙, 최은숙 (1991). 농촌여성 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 2, 1-14.
- 3) 김외숙, 이기춘 (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 3, 171-187.
- 4) 김정희 (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 4, 37-51.
- 5) 김주숙 (1984). 한국의 농촌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2, 3, 한국여성개발원. 43-73.
- 6) 김효숙 (1983). 도시와 농촌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혜경, 문수재, 문숙재, 윤정숙, 이영 (1990). 농가생활연구-한국농촌의 공업화에 따른 농가생활의 변화. 서울:신광출판사.
- 8) 농촌진흥청 (1979,1983,1988,199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 9) 문숙재 (1996). 생활시간연구. 275-300. 학지사.
- 10) 이기영, 이승미 (1994).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 (3), 11-26.
- 11) 윤소영 (1990). 농촌주부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조희금 (1989).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2, 145-161.
- 13) 조희금 (1990). 농촌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2, 163-180.
- 14) 허경옥 (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 90-105.
- 15) 차석란 (1995).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만족도 및 가사노동 가치인식 사이의 관계. 생활과학연구, 제1집: 11-22, 대전대학교.
- 16) Ahearn, M. (1986). Financial well-being of farm operators and their households. Washington, DC: Nation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17)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18)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rev. ed.),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19) Berk, R. A. (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In S. F. Berk (eds). Woma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CA: Sage Pub.
- 20) Bryant, W.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 Press.
- 21) Bryant, W. K., & Zick, C. D. (1994). The economics of housepousery: An Essay on household 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5, 2, 137-168.
- 22) Douthitt, R. A., Zick, C. D., & McCullough, J. (1990). The rol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explaining time-use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1, 23-52.
- 23) Firestone, J., & Shelton, B. A. (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 478-495.
- 24) Gronau, R.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6, 1099-1023.
- 25) Marlowe, J. & Godwin, D. (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1, 95-109.
- 26) Mauldin, T., & Meeks, C. B. (1990). Time allocation of one-and two-parent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 1, 53-70.
- 27) Mincer, J. (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 aspects of Labor Economics, H. G. Lewis, ed., Univ.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Conference Series No. 14.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28) Nickols, S. Y., & Abdel-Ghany, M. (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2, 189-198.
- 29) Sumner, D. A. (1982). The off-farm labor supply of farmer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4, 499-509.
- 30) Tyrrell, T., & Mount, T. (1982). A nonlinear expenditure system using a linear logit spec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4, 539-546.